## — 33 —

### 악성 십이지장-담관 협착증 환자에서 이중 금속배액관을 이용한 보존적치료

고려의대, 가천의대[†] 소화기내과 김효정*, 최창원, 조남영, 연종은, 박종재, 김재선, 변관수,
박영태, 이창홍, 정문기[†], 구양서[†], 김유경[†], 김선숙[†], 김주현[†]

**배경:** 악성 담관협착의 보존적치료로 내시경적 담관내 금속배액관 삽입술(담관배액술)을 시행한 환자의 일부에서는 암침윤에 의한 십이지장 협착이 발생된다. 반대로 악성 십이지장 협착의 보존적치료로 내시경적 십이지장내 금속배액관 삽입술(십이지장배액술)후 담관협착 또한 발생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담관 및 십이지장 배액술이 필요한 악성 십이지장-담관협착증 환자에서 이중 배액관 삽입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법:** 담관배액술후 십이지장배액술을 시행한 12명(남:녀=7:5, 평균나이 61세)의 biliary-first군과 십이지장배액술후 담관배액술을 시행한 13명(남:녀=7:6,평균나이 65세)의 duodenal-first군에서 이중 배액관 삽입술의 시술성적을 알아보았다. **결과:** 1. biliary-first군의 담관협착 원인은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전이암이 각각 7명, 3명, 1명, 1명이었고, duodenal-first군의 십이지장 협착 원인은 췌장암, 십이지장암, 위암이 각각 7명, 5명, 1명이었다. ($P>0.05$) 2. 담관배액술후 십이지장배액술까지의 기간은 6.8개월, 십이지장배액술후 담관배액술까지의 기간은 2개월이었다. ($P<0.05$) 3. Biliary-first군에서 십이지장배액술의 성공률은 92%(11/12)로 1예는 십이지장내 담관 배액관에 의하여 원위부 소장으로의 유도선 삽입장애로 실패하였다. 4. Duodenal-first군에서 담관배액술은 11예(85%)에서 성공적이었으나 7예(64%)는 일시적 외부배액술 후의 경피적 배액관 삽입이 필요하였다. 2예에서는 경피적으로 유도선의 경유두적 통과가 곤란하여 실패하였다. 5. Biliary-first군에서 십이지장배액관의 평균 개존기간은 2.8개월, Duodenal first군에서 담관배액관의 평균 개존기간은 4.2개월 이었다. **결론:** 악성 십이지장-담관협착증 환자에서 금속관을 이용한 이중 배액관 삽입술은 보존적 치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담관배액술후 추후의 성공적 십이지장배액술에 미치는 담관배액관의 영향은 적지만, 십이지장배액술후에는 배액관 자체에 의하여 경유두적 담관배액이 곤란할 수 있어, 보다 침습적인 경피적 담관배액술이 흔히 요구된다.

## — 34 —

###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담도 배액관 삽입후 발생한 급성 담낭염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 연구소
이상호*,권광안,김봉룡,김성환,장근영,천영국,김영석,문종호,조영덕,김연수,이준성,이문성,심찬섭,김부성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게 담도 배액관의 삽입은 이미 정립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치료방법이다. 담도 배액관 삽입후 발생하는 급성 담낭염은 배액관으로 인한 담낭관의 폐색이나 종양의 증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자들은 1997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악성 폐쇄성 황달로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환자중 급성 담낭염으로 경피경간 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던 12예를 대상으로(남;7명 여:5명 52-88세, 평균나이 72.6세) 1)악성 폐쇄성 황달의 원발 질환, 2)종양의 위치, 3)원발 종양의 담낭관 내지 담낭 침범 유무,4) 담도 배액관의 종류, 5)담도 배액관 삽입후 급성담낭염 발생까지의 기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총 12예중 원발질환은 각각 Klatskin tumor 5예,mid CBD cancer 2예,distal CBD cancer 3예,pancreatic head cancer 2예 였으며 진단 당시 이미 담낭관에 종양침범이 있었던 경우는 8예, 없었던 경우는 4예 였으며 프라스틱 배액관 7예, 금속 배액관 5예(막부착형 4예, 막비부착형 1예), 담도 배액관 삽입 후 급성 담낭염 발생까지의 기간은 3일에서 295일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담도 배액관 삽입후 급성 담낭염 발생까지의 기간과 악성 폐쇄성 황달의 원발 질환, 종양의 위치, 원발 종양의 담낭관 내지 담낭 침범 유무, 담도 배액관의 종류는 서로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그리고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담도 배액관 삽입 후 추적 관찰에서 급성 담낭염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